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Vol.33 _ 2012. 09 | 조혜영 선임연구위원



NYPI YOUTH REPORT

VOL.33 _ 2012. 09 www.nypi.re.kr

발행일 2012. 09. 30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6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Vol.33 _ 2012. 09 | 조혜영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 I. 문제제기 _ 02
- II.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 문제 현황 _ 03
- III. 정책 제언 _ 11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¹⁾

I. 문제제기

■ 대학 진학 후 당면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

-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
-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되어온 청소년들은 막상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 ▶ 대학 입학에 위해 마련해야 하는 등록금 부담, 부모와 분거하여 통학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 물색 및 비용 부담, 생활비와 용돈 증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자립의지와 미래 계획 설계, 진로 수립 의지는 떨어지는 상황임.

1)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과제인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후기청소년기는 청소년기를 마감하여 스스로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사회 여건은 취약한 실정임.
 - ▶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전히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모에의 의존성이 높으며, 생계나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업 수행과 자기개발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
 - ▶ 또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히 영어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진로 관련 장기적 전망이나 진정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개척하려는 의지는 희박한 실정으로 드러남.
-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개별 가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음.
 - ▶ 결국,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들의 현안에 대한 포괄적·심층적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II.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 문제 현황

■ 포괄적 정책으로부터 소외

- 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은 단지 이들 연령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가정 및 부모들의 노후대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기능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대상으로서의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으로서의 후기청소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진단하며, 당면 과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음.

○ 이들 연령대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인 청소년기본법의 정책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이나 주요 정책과제는 13-18세에 집중되어 왔음. 그에 따라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후기청소년 연령대의 정책 현안 및 추진 상황을 총괄하여 점검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과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음.

○ 결국 국가적으로 사회 성장 동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후기청소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 전담부서를 정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부처의 정책 사업간 연계 조정, 관련 연구 수행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가 주요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가중되는 등록금 부담

○ 후기청소년들은 대학 입학 및 재학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액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금 액수에 비해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의 편의시설,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미흡함을 느끼고 있음.

▶ 설문조사²⁾ 결과 등록금에 대해 부담되는 편(47.3%)이라는 응답과 매우 부담된다(27.5%)는 응답을 합하면 74.8%로 전체 조사자의 3분의 2이상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자신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총액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임.

○ 등록금 납부는 개인적 차원의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가계의 부담으로 전가되며, 나아가 대출금 부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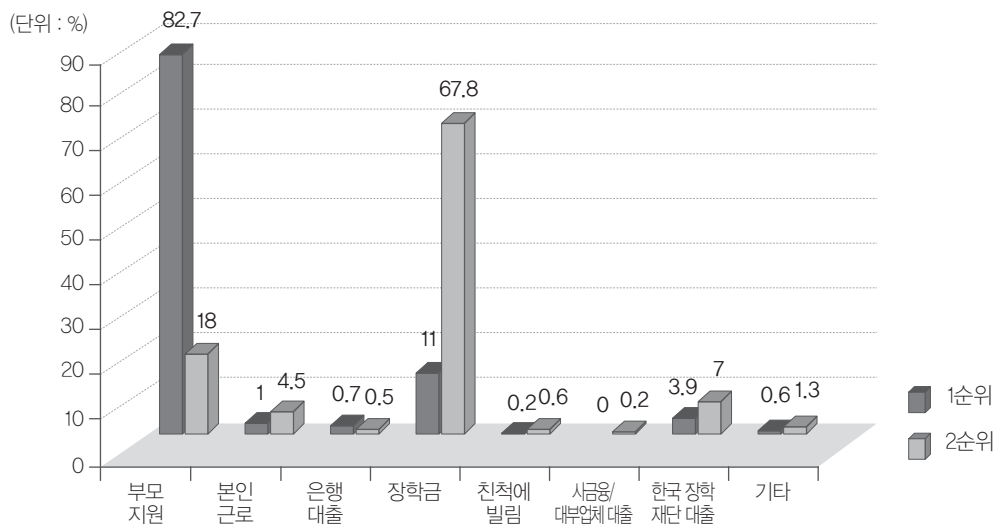
▶ 등록금 납부는 부모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타 금융기관 대출, 일부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용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를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졸업 및 취업 후 빚을 떠안아야 함.

※ 설문조사 결과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대비 17%수준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82.7% 학생이 부모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7.1%의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들 중 81.7%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본 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지역별 4년제 대학과 2년/3년제 전문대학의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사용하여 할당표본의 수를 산정하였으며, 총 2,417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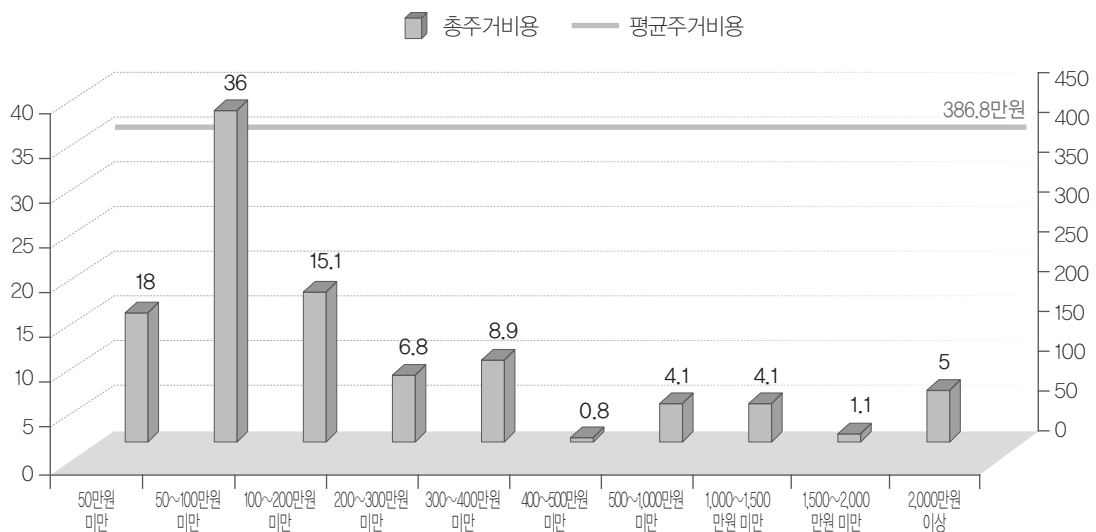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 등록금 조달방법

■ 재학 중 주거 확보의 어려움

○ 대학 진학을 위해 부모와 분거하여 원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 거주지 마련은 안정된 학업을 위한 우선 요건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대학의 기숙사 여건은 취약하며, 거주지 마련과 비용 부담도 역시 개별 가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

▶ 적절한 주거지 마련과 주거비용 충당은 개별 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6.1%, 이들의 52.3%는 기숙사, 33.1%는 월세자취를 하고 있으며, 기숙사, 학사,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대학 재학생의 총 주거비용은 평균 386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 부모 비동거 대학생 총 주거비용

※ 기숙사나 향토 학사를 제외한 보증금이 요구되는 주거형태(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의 평균 보증금은 373.7만원이며, 이 보증금을 제외한 월평균 지출 주거비는 30.7만원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주거형태가 월세자취인 학생들은 평균보다 상회하는 월평균 40.3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2배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

※ 이상의 주거비용은 96.3%가 부모 지원으로 부담하며, 3.0%만이 본인 근로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 복지 수준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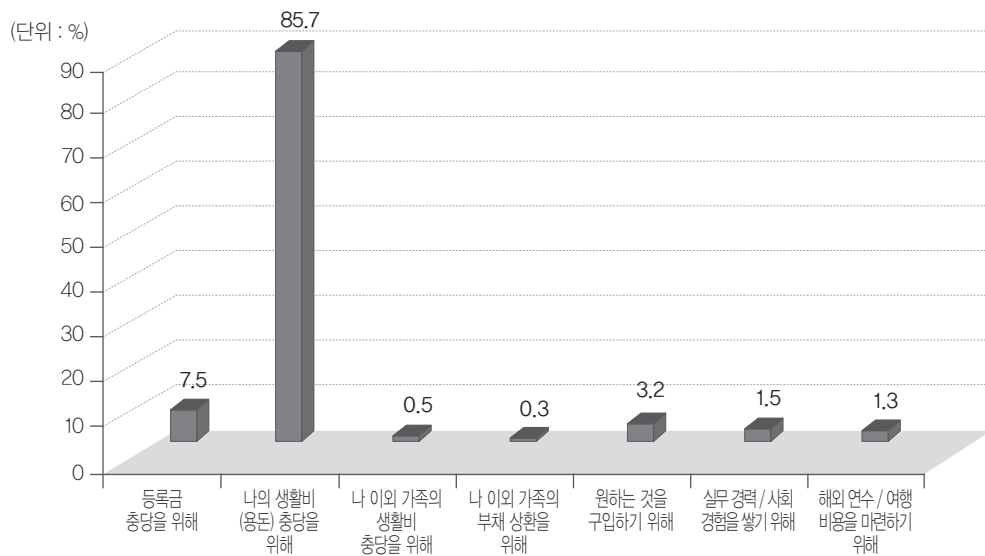
○ 정부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제도의 경우도 인지도가 낮으며, 현실성 면에서 여전히 취약함.

▶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3.2%이며,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0.7%에 불과하였으며, 직접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에서 공급 물량을 찾기 힘든 실정임.

■ 재학 중 근로 및 경제적 부담

○ 대학 재학 중 청소년들은 생활비, 용돈, 학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설문조사 결과 재학 중 근로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및 용돈 충당(85.7%)으로 나타남.



【그림 3】 재학 중 근로의 주된 목적

○ 하지만 재학 중 근로가 직업 선택이나 향후 진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노무일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31.7%로 그다지 높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하는 일은 서빙/주방일(39.7%)과 매장관리(27.9%)이며, 평균 6.5개월 정도 근무에 주당 14.1시간 정도 근로를 통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주로 하는 일

구분		사례수	매장 관리	서빙 주방	서비스	생산. 기능	사무. 회계	IT. 디자인	상담. 영업	강사. 교육
성별	전 체	602	27.9	39.7	6.0	3.0	9.3	0.2	0.7	15.8
	남성	284	27.5	36.6	7.4	6.0	8.5	0.4	0.7	15.8
	여성	318	28.3	42.5	4.7	0.3	10.1	0.0	0.6	15.7
	x ² -test	103.7***								

■ 입시 경쟁에 이어 끝없는 취업 준비 경쟁

○ 대학 재학 중에 막연히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점수나 스펙에 연연하게 되고 진지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와 연계된 전공을 탐구하고, 이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체계적인 인생 설계 기회는 갖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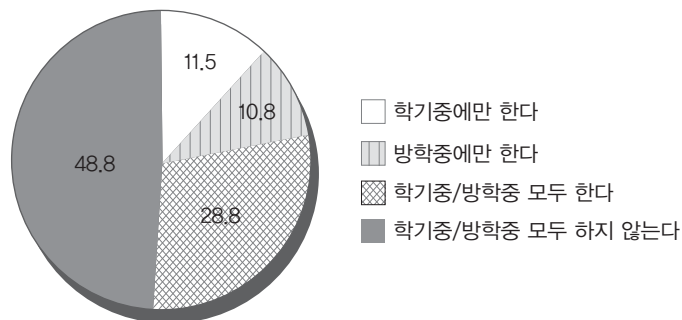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서는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65.7% 수준이며, 1학년의 경우는 59.6%, 2학년은 67.2%, 3학년은 68.5%, 4학년은 76.6%로 대학에 입학한 직후의 진로계획은 낮은 수준임.

【표 2】 진로 계획 유무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x ² -test
성별	전 체	2,417	65.7	34.3	3.87*
	남성	1,213	63.8	36.2	
	여성	1,204	67.6	32.4	
계열	인문/사회	1,205	66.8	33.2	1.29
	자연/공학	1,212	64.6	35.4	
학년	1학년	905	59.6	40.4	33.31***
	2학년	875	67.2	32.8	
	3학년	333	68.5	31.5	
	4학년	304	76.6	23.4	
학제	2/3년제	1,200	67.7	32.3	4.08*
	4년제	1,217	63.8	36.2	

▶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특히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저학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조사 대상자의 51%가 스펙쌓기를 하고 있는 현실임.

※ 스펙의 항목은 각 항목들의 성격에 따라 채우고자 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어학,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인턴십 등 실무경력, 단체활동, 공모전 준비 등임.



【그림 3】 스펙 쌓기 노력 여부

■ 문화와 여가 생활 여건 취약

○ 여가 실태에서도 대학 재학 중에는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집중적으로 함에 따라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부담, 콘텐츠 및 시설 부족 등은 여가활동의 제약요소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된 여가활동은 정적인 휴식 등에 치중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문화활동, 관광, 스포츠참여 등 대체로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로 지적되어 대조를 이룸.

- ▶ 주된 여가활동은 인터넷 게임이나 검색, 쇼핑/외식, 독서, 음주 등의 취미·오락활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TV시청이나 음악감상, 산책 등 휴식활동이 67.9%, 전시·공연·영화관람 등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44.9%로 조사되었음.

【표 3】 주로 하는 여가 활동

구분	사례수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1+2+3 순위	2,417	44.9	5.1	4.6	17.8	3.0	88.2	67.9	10.3
1순위	2,417	13.4	1.4	1.1	7.0	0.3	44.8	30.0	1.8
2순위	2,366	15.6	2.1	1.4	5.1	1.3	47.3	23.3	3.8
3순위	2,158	20.7	2.0	2.4	6.5	1.6	44.2	16.8	5.7

Ⅲ. 정책 제언

■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전담 부서 확보 및 총괄조정 기능 부여

- 후기청소년 대상 기능별 정책 사업 수행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 전담 부서 확립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점검 필요
 -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후기청소년들의 기능별 정책 사업 수행과정을 총괄 조정 하는 기능 부여 필요.

- ▶ 이를 위해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총괄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를 구축하고 사무국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에 두도록 함.

○ 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 대책 마련

- ▶ 근시안적으로 어학 점수, 자격증 취득, 학점 관리에 내몰리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자신의 생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종합 대책 수립 필요함.
- ▶ 컨설팅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경제적·심리적 자립 지원 방안 모색.

■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초저리 이자와 상환방법의 다양화가 필요.

○ 다양한 장학금 제도 마련

- ▶ 기업과 학교 연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사회공헌사업 중 대학장학금 제도 항목을 마련하도록 독려함. 기업에서 현재는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나, 사회공헌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역의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급 방안을 모색.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 지역사회 봉사, 재능기부 등 후기청소년의 기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고려.

- ▶ 근로장학금 제도 확대: 학교 내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들에 대해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내 근로장학금 제도를 확대.
- ▶ 등록금의 일정 부분 장학금화: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의 일정 액수를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활용하도록 권고.

○ 등록금 현실화 방안 마련

- ▶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세확보를 통한 대학생 등록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 필요. 또한, 국공립대, 사립대 등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현실적인 등록금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의 현실화

○ 대학생전세임대 지원 조건 완화 및 물량 확대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물량을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대학생인 경우 대출 등의 조건을 완화하도록 함.

○ 대학생 주거 월세 지원 방안 확충 및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 ▶ 대학생들의 경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물량을 확보하여 저렴한 월세를 보급.
- ▶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공동주택, 하우스 쉼어, 룸쉐어 등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를 하고, 저렴한 월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미분양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보급하는 것도 필요함.

■ 재학 중 근로 관련 대책 수립

○ 재학 중 근로와 진로 연계 방안 마련

- ▶ 현재 재학 중 근로는 생활비나 용돈 벌이를 위한 단순 노무, 서비스에 국한되어 노동의 의미나 진로 관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대학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이 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재학 중 근로 관련 교육 제공

- ▶ 교육적 관점에서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를 바라보고, 일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나 청소년관련 시설 등에 근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함. 가정경제, 근로자 권리 교육, 사회생활 기술, 매너 교육, 사회성, 책임감 등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함.
- ▶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지침 등 권리교육이 청소년 전 연령에서 부족한 상황이나, 특히 실제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은 더욱 실제로 근로기준법, 근로자 권리 등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 보호 대책 수립

- ▶ 후기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 중 인권 침해 사례, 임금 지연이나 미지급, 노동시간 엄수 등 부당근로 관련 고충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국가차원의 청소년 근로 정보 시스템 개발

- ▶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및 개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도록 함. 현재 민간 운영으로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와는 차별화를 기하고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모범 업소 등을 중심으로 건전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하며, 후기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지원을 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업 준비 관련 지원 방안

○ 진로 및 취업 준비 관련 적절한 멘토 지원

- ▶ 자신의 처지와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선배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여기서 단순히 사회 저명 인사나 성공적인 인물을 멘토로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비슷한 전공이나 사회 경험을 가진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선배들을 멘토로 활용하도록 함.

○ 다양한 인턴십 참여 유도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역할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취업으로의 연결이 어렵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인턴십 활용에 적극 참여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어 학습 및 자격증 관련 수강비 부담 경감 대책

- ▶ 학기 중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및 비용은 어학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지나친 여학에의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정작 취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여학을 배워야 한다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문화와 여가 지원 대책 강화

○ 문화 여가생활 혜택 부여

- ▶ 학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부모로부터의 지원도 제한된 상황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도 문화 및 여가시설, 교통비 등에서 일정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청소년증 연령대를 확대하거나 성인 요금에 비해서는 할인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 ▶ 대학에 진학한 후 봉사활동 기회가 적다는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후기청소년 사회봉사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13-18청소년들과의 연계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기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후기청소년들이 거처온 삶에 대해 후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될 것이라 여겨짐. 진로나 진학에 대한 경험 공유, 예체능이나 전공 관련 재능 기부, 방과후 나홀로 아동, 청소년과의 언니 오빠 결연 사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 자원 봉사 실적은 학점 연계 또는 포인트로 누적하여 장학혜택을 부여하거나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2012 기본연구과제

-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연구 I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III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II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I
-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정책연구
- 청소년 도덕성 발달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
-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
-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 한·중·일·미·핀·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III

